

# 누구나 살고 싶은 한옥마을 만든다

### 전주시, 재생 2.0 프로젝트 추진 위해 주민 소통 강화 내달에는 주민·상인 자생단체들과 마을잔치도

전주시는 한옥마을을 상업 중심의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누구나 살고 싶은 마을로 만들기 위한 주민주도의 한옥마을 재생 2.0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주민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한옥마을 내 자생단체 등 주민과 상인, 건물주 등과 꾸준히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에는 SNS 소통을 위한 한옥마을 주민소통방을 개설하는 등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소통에 힘쓰고 있다.

또한, 시는 한옥마을 주민과 어진포럼·한복협회·숙박협회 등 자생단체간 화합을 위한 정보공유 서비스, 온·오프라인 소통, 나눔 행사 등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히히낙락, 번사포 생일잔치, 왕과의 산책 등 한옥마을 내 주요 문화행사에 주민과 자생단체 회원들을 초청하여 한옥마을 문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8회에 걸쳐 400여명의 주민들과의 자리를 마련했다.

시가 이처럼 주민소통과 상생에 나선 것은 그간 우수한 전통문화자원을 토대로 전주한옥마을이 전국적인 이슈와 관심 속에서 양적인 성장을 거듭했지만 상업화와 임대료 상승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하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최근 시와 전주한옥마을 주민과의



전주시는 전주한옥마을을 상업 중심의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누구나 살고 싶은 마을로 만들기 위한 주민주도의 한옥마을 재생 2.0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주민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사진은 최근에 열린 한옥마을 주민·자생단체 회원들과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주민은 "전주한옥마을은 내가 30년 이상 살고 있는 마을로, 아침·점심·저녁으로 달라지는 풍경과 끝없는 매력을 간직한 이곳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주민들의 목소리는 귀담아듣지 않고, 오직 상인들의 목소리만 부각돼 한옥마을의 진짜 목소리를 찾아내고, 여행객들도 진정한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양적성장이나 아닌 질적 성장을 이 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적정 임대료를 받으며 전주한옥마을의 지속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바른 건물주(가칭)와의 간담회에 참석한 한 주민도 "일부 높은 임대료를 받는 자본가도 존재하는 건 사실이지만 원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대부분의 건물주들은 임대료를 적정하게 받고 있다"며 "한옥마을 건물주로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잡화점이나

전동회와 같이 어울리지 않는 업종에 대해서는 임대를 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점포가 비어있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시는 향후에도 전주한옥마을 주민과 상인협회, 자생단체와의 지속적인 간담회와 대화의 자리를 마련해 한옥마을의 진짜 목소리를 찾아내고, 여행객들도 진정한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양적성장이나 아닌 질적 성장을 이 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한옥마을의 정체성과 지속발전을 위한 과제를 풀기 위해 바로 주민과의 소통에서 해결답안을 찾고 있으며, 지속적인 소통과정을 통해 느낀 것은 한옥마을을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주민들이 아주 많다는 사실"이라며 "주민들이 사랑하는 전주한옥마을을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고, 여행객들도 진정한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양적성장이나 아닌 질적 성장을 이 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 전주시의회 의정활동 잇따라

### 문화경제위, 농기센터 현장 점검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위원장 박형배 의원)가 지난 19일 농생명소재연구원, 전주시농업기술센터에 현장 방문을 했다.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위원회는 농생명소재연구원을 방문하여 관계자를 격려하고 바이오유터 개발센터 구축현황 추진상황 및 계획 청취 후 건의사항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미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과 지역 농생명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소재개발과 산업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당부했다.

이어 전주시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여 농업기계임대사업소와 농업미생물 배양실 관계자를 격려하고 주요 사업현황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박 위원장은 "농업은 우리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산업이며 첨단 기술이 주도하는 4차산업혁명의 주요 동력"이라며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농생명융복합콘텐츠의 발굴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 생태교통연구회 정책간담회

제11대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생태교통연구회(회장 김원주 의원)'는 최근 중부비전센터에서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함께 안전한 보행로 조성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연구회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는 도로를 점거한 자동차 대신 사람이 도로의 주인이 되는 안전한 보행로 조성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정책 제안과 보행로의 확대 및 제 기능 수행을 위한 대응 방안 마련 등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김원주 의원은 "보행로의 안전이 곧 시민의 안전이라고 생각하고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전주시의회 생태교통연구회는 10명의 의원들이 안전한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 활동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의회 생태교통연구회는 제11대 전주시의회 의원들이 환경보전과 시민복리를 위한 생태교통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고 공유함으로써 의회 차원의 유기적인 협력방안 및 정책 제안 마련 등의 생산적이고 능동적인 연구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발족했다.

/송효철 기자

## '아이들에게 좋은 모습만'

### 전북경찰 모션그래픽 활용 교통사고 예방 홍보 '눈길'

전북지방경찰청(청장 강인철)은 지난 18일부터 국내 1위 자동차 커뮤니티인 보배드림 공식 SNS 인스타그램(팔로워 15만9,000명), 유튜브(구독자 1만1,000명)에 교통안전을 주제로 한 모션그래픽을 게시했다.

모션그래픽은 비디오 영상 혹은 애니메이션 기술을 이용하여 다양한 움직임이나 최적의 화면을 만들어 내는 영상그래픽이다.

보배드림은 2,000년 최초 서비스를 게시한 국내 1위 자동차 커뮤니티로 막대한 사회적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

이번 홍보는 전북경찰 중점추진사업인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를 위해 기획됐으며 전달력이 좋은 모션그래픽을 활용하여 시민 관심을 유도했다.

/송효철 기자

이번 모션그래픽은 35초 분량으로 "무엇이든 빨리 배우는 아이들에게 무한 횡단 등 교통위반을 하는 부모의 모습이 아닌 교통질서를 지키는 부모의 좋은 모습만 보여주자"는 내용으로 제작됐다.

보배드림 SNS에 게시된 영상을 본 한 시민은 "영상 정말 잘 만들어졌네요 많이 홍보하고 저부터 조심하겠습니다"며 "시민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이색적이고 다양하게 홍보하는 경찰의 노력에 감사하다"고 반응을 보였다.

한편, 강인철 청장은 "앞으로도 교통사고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전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도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치안정책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 전주시, 관광통역 청년해설사 위촉

글로벌 문화관광도시 도약에 나선 전주시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맞춤형 통역서비스를 제공할 관광통역 청년해설사를 운영한다.

전주시는 지난 19일 한국전통문화전당 4층 교육실에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여행객들의 관광안내와 관광안내서비스 개선에 대해 도입한 관광통역 청년해설사제도 운영을 위한 위촉식을 갖고 전북지역 청소년과 대학생 등 77명을 관광통역 청년해설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전주·전북지역 관광통역 청년해설사들은 전주와 전북지역에서 학습하고 활동하고 있는 고등학생과 대학생들로 오는 2019년 10월부터 약 1년간 전주한옥마을과 구도심 등 외국인 여행

객들의 여행 거점지역에서 관광안내와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 전주비밀밭축제 등 각 지역 관광축제 등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게 된다.

이들은 이날 발대식에서 관광객에게 올바르게 신속한 관광통역 서비스와 적극적인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교육활동을 통해 관광통역 최대의 만족을 이끌어내도록 함을 것을 다짐했다.

관광통역 청년해설사는 시와 전주대학교 국제교류원, (사)국제통번역자원봉사단이 공동 선발·관리하며, 활동장소 및 통역봉사는 전주한옥마을과 영화의 거리 등 구도심을 중심으로 여행객들과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송효철 기자

## 생태·교육 전문가 전주 세계슬로포럼 참가

### 생태, 독일 프란츠 알트 박사·교육, 덴마크 울리크 이버슨 교장

태양에너지와 생태·생명분야의 베스트셀러 작가인 독일의 프란츠 알트 박사와 대안교육의 혁신사례로 유명한 덴마크의 울리크 구스 이버슨 교장이 전주 세계슬로포럼&슬로어워드 참가를 위해 전주를 찾는다.

전주시와 국제슬로시티연맹 한국슬로시티본부부는 '생태적 경제'·'생태주의자 예수' 등의 저서로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독일 언론인인 프란츠 알트 박사와 대안교육의 혁신사례로 유명한 덴마크 '바우네호'에프터스콜레의 울리크 구스 이버슨 교장이 오는 24일과 25일 국립무형유산원 일원에서 열리는 '제2회 전주 세계슬로포럼&어워드'를 위해 전주를 방문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슬로시티 철학을 실천해온 분야별 최고 전문가들이다.

먼저, 인문학과 사회과학을 모두 공부한 프란츠 알트 박사는 독일에서 연

간 약250차례 강연 초청을 받을 정도로 인기가 좋은 작가이자 언론인으로, 대중에게 태양 에너지의 가능성과 에너지 전환의 시급함을 가장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강연자로 정평이 나왔다.

또한, 이번 세계슬로포럼에서는 유엔이 매년 발표하는 세계행복지수 조사에서 지난 5년간 최상위권(1~3위)를 놓치지 않고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손꼽히는 덴마크가 행복한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인 교육 비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도 마련된다.

울리크 구스 이버슨 바우네호에프터스콜레 교장은 이번 포럼에서 덴마크 교육이 어떻게 행복사회의 근간이 됐는지를 실제적 사례를 통해 소개할 예정이다. 바우네호에프터스콜레는 지난 2016년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오딧세이 학교 정책을 위해 벤치마킹했던 학교로 잘 알려져 있다.

/송효철 기자

## 전북도내 학교 성범죄 증가세

### 작년 64건 전년보다 22건 늘어... 올 상반기만 36건 소범훈 의원 "청소년경찰학교 확대 편성해야" 주문

전북지역의 학교 성범죄가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지난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범훈 의원(경기 광주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초·중·고교에서 일어난 성범죄는 64건이었다.

전북지역 초·중·고교 성범죄는 지난 2015년 35건, 2016년 42건, 지난해 64건, 올해 상반기 36건이 발생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청소년경찰학교 확대 편성 같은 현실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도내에서 운영되는 청소년경찰학교

는 전주완산경찰서, 군산경찰서, 익산경찰서 등 3곳에 불과하다.

청소년경찰학교는 학생들의 학교폭력 예방의식을 높이기 위해 경찰과 교육부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다.

학교폭력 역할극과 심리상담 같은 체험형 학교폭력 예방교육, 경찰 장비와 과학수사 실습 등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소범훈 의원은 "학교폭력예방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현재 전국 25개 경찰서 중 50곳에서 운영하는 청소년경찰학교를 확대 편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뉴시스

축! 전주매일 창간

# 현장중심 高 소득 사업

## 진안농협은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현장중심 高 소득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 합 장	허남규
감 사	김창주 홍성준
상임이사	김용철
이 사	성태근 김기흠 허준석 구은서 이성래 김명갑 양병일 정환오 백인애